

건강한 빛과 아름다운 환경을 위하여...

[(주)대진조명]



이재희 | 대표이사

조명산업은 빛을 발생하는 전구, 빛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명기구 및 전구와의 기능적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 등 3종류로 분류합니다.

(주)대진조명은 그 중 조명기구를 연구, 개발하여 생산 및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며 건강한 빛과 아름다운 환경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대진조명은 1965년 대진사로 시작하여 조명 분야에 42년 동안 한 우물만을 파온 기업으로써 품질우선주의로 등 기구를 생산해 온 대표적인 조명회사이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대표는 “고객과의 만남과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신제품 개발과 조명설계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대진조명은 최고의 제품 생산을 지향하며, 가격으로 승부하던 구시대적 경쟁에서 탈피하

여, 고객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맞춤형 디자인과 제품개발로서, 최고가 아니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교훈으로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 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자신만의 경영신념을 이야기 했다.

설립초기 이재희 대표는 그 당시 척박한 조명기구 상황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심청사달”이란 사훈에 의거하여 제품의 전 공정 작업에 임함에 있어 항상 소비자를 생각하는 맑은



▲ 클리어시스템

자세로 접근함으로써 좀 더 나은, 좀 더 제대로된 제품생산에 정진하고 있다.

2005년에 제조공장으로는 처음으로 레이저 가공기를 들여와 조명부분에 프로그램과 작업 상황을 셋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고 한다. 올해는 완성된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깨끗한 마감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한발 더 접근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새로운 2006년도 제품개발에 70%정도 완료되어 양산준비중이라 한다.

"현재 저희 동종업계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건설 물량의 감소 및 중국조명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시장이 외곡 되고 가격은 내려가는 3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계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제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대진조명은 항상 긴장하며 대진조명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대표는 현 조명 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밝혔다.

(주)대진조명은 일반세대등기구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각종 형광등기구, 백열등기구, 펜던트 등기구 외 SUS용 외등기구를 주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베스트 셀러 제품으로는 클리어 씨리즈로 아크릴을 이용한 제품으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주로 하는 제품으로 타 동종 제품보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주)대진조명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어 따로 A/S팀을 가지지 못하고 영업팀에서 구역별로 접수되는 A/S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추후 A/S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조명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대

진조명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대표는,

"국내의 한정된 시장규모 상황에서 좀 더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는 특화가 필요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점진적인 시장개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 시공, 설계의 전 분야에서 적절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장·단기적 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국내 조명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이대표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조명산업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는 듯했다. 대표를 중심으로 전 직원의 화합된 모습은 또한 (주)대진조명의 밝은 앞날의 청신호인 듯 보였다.



▲ 신형플라잉시스템